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병수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로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무역, 경제 분야에서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에서의 한류 열풍도 사서히 퍼지고 있다.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다음 영역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학교육 개선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한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나온 대학평가를 보면 서울대가 50위를 기록하고, 대부분 상위 대학들이 100위권 안팎을 차지한다 그치고 있다. 이것이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편을 보여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대학이 많이 존재해야 한다. 한국 휴대전화가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내수 시장이 필요했듯이, 노벨상을 타거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즉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수한 대학

이 많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식정보산업에 필요한 인력 창출에 도움이 된다. 지식정보산업이라 하면 온갖 분야에서 정보와 지식을 생산·관리·분배·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학교육 개선이 아닌가 싶다.

대학교육, 값 뿐만 아니라 질도 보자

는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효과노릇을 했지만, 21세기에는 신기술로 제조업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학 수의 증가로 필요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필요한 학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경우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진짜 문제는 고학력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대학 4년동안 전공 공부 무시하고 고시나 자격

증에만 매달렸다면 이것은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자격증의 보호 아래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안일을 도모하는 졸업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이 이제는 지식산업에서 한수 가르칠 입장이 되려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토론과 비평을 통한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하려면 먼저 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

대학에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기 보다는 큰 테두리를 주고 각 대학이 이 안에서 각자 특성과 비전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은 국민이 대다수이므로 지금까지 많은 국제적인 패기를 달성했던 것처럼 대학교육 발전에서도 조만간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런 조건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에서처럼 대학의 간부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뜻있는 이들을 감동시켜 기부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대학생의 사회공헌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조건 등록금의 반을 지원 하는 것

보다는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과 대학이 창의력있는 대학생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참작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의 상황과 대학의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 보조 심사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전원 50%라는 획일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사분란한 독재 보다는 시골벽적인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올바른 선택이라면 우려곡절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침으로써 국민 모두가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 수 있다.

대학에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기 보다는 큰 테두리를 주고 각 대학이 이 안에서 각자 특성과 비전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은 국민이 대다수이므로 지금까지 많은 국제적인 패기를 달성했던 것처럼 대학교육 발전에서도 조만간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美 엘른데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문화전당 내년에 부분 개관 어렵다니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추진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12년 부분 개관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부분 개관할 시설들의 콘텐츠가 미흡하고 완전 개관까지 2~3년간의 운영 프로그램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게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또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보조관, 민원실, 상무관 등 7개 보조관 시설과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등 신규시설이 서로 연계되는 복합 문화시설이어서 부분 개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정식 개관인 2014년 말보다 2년 앞당겨 부분 개관함으로써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 및 기업체 유치 등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전당 건립은 당초 지난해 말 완공에서 4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지만 이 계획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6월 5·18 관련단체로 구성된 '구도

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별관 철거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년여만에 별관을 부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공동대책위로부터 역할을 위임 받은 시·도민대책위가 이마져 안 된다고 하니 다시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찍이 이상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도 의문시된다. 현재 전당 건립공사 공정률은 22%로, 매년 1500억~2000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입돼야 정상적인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어떤 이유로든 지체나 결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별관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문화전당 사업을 위해 광주시장과 의회의장, 이 지역 국회의원 8명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도 허송세월을 보낼 일은 아니다. 부분 개관에 초점을 맞추되 여의치 않다면 정상 개관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F1 관심' 현안 타결 계기 때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에 이해적으로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박준영 지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두 번째로 F1대회가 열리지요. 잘 추진되도록 하십시오"라며 "F1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의외다. 물론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F1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의례 수준으로만 여길 수 없다.

광양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우리 나라가 '스포츠 그랜드슬램(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F1 대회)을 유지한 세계 다섯 번째 나라가 되면서 F1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현장에서 스포츠의 위력과 효과를 실감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착에 결림돌이 됐던 각종 현안을 타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영암 F1은 그동안 부지양도·양수를 둘러싼 농어촌공사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국비지원 난색 등으로 기로에 섰다.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소극적이던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전남도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고 F1 대회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제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무췌 대통령 관심 표명이 영암 F1 대회의 성공적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고



강석오

K형, 밀보리가 한창 익어가던 오월 어느 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박물관에 오셨던 선생님의 얘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 글을 보냅니다.

"선생님, 이게 밀이예요? 보리예요? 이게 밀인가 저것이 보리인가 잘 모르겠네!" "아이구, 선생님도! 이게 밀이고 저것이 보리인데, 그것도 몰라?"

물어보는 선생님은 새내기 선생님이로 보였고 핀잔을 준 선생님은 40대쯤 된 것 같습니다. 지나다가 그 대화를 듣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00중학교에서 왔는데요." "그럼 농촌학교인데 보리와 밀을 구분 못 하십니까?"

농업박물관 풍경화

"지금은 농촌학교에서 근무하지만 내내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그 선생님이 보리와 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농업과 농촌이 이처럼 소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교사가 될 때까지 보리와 밀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선생님. 이 같은 예는 일부 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벼를 쌀나무라고 표현하는 일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농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자고 나면 아파트 숲만 보이는 도시에서 농촌 아침 들뜬의 아름다움을 알겠습니까? 정서가 삭막해져 만 갈 뿐이겠지요.

지금 도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생명공학자의 말처럼, 사람으로 초만원인 도시, 하늘을 찌르는 고층건물, 그 많은 자동차와 매연,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조

그만 될 곳도 없는 '회색'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회색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쟁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형, 여기서 탈농이니, 갈수록 소외되어 가고 있는 농촌이니 하면서 농촌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로 간 사람들이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건 우리의 근본은 농업이며 고향은 농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어릴 적에 살았던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노랫말처럼 '동구 밖 과수원 길'은 시멘트로 덮여졌고, 초가집은 볼 수도 없습니다. 지게나 탈구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릴 적 그 고향은 빛 바랜 사진첩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박제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K형을 농업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 사진 속의 풍경이 아니라 옛날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 바로 이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초가삼간이 있고, 탈구지도 물레방아도 있습니다. 봄이면 할미꽃을 비롯한 각종 야생화가, 여름이면 채송화, 봉숭아가 필니다. 봉숭아 잎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가을에는 국화꽃이 피고 원두막과 초가지붕에는 달맞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보리타작, 모내기, 허수아비 만들기, 짚공예품 만들기 등을 비롯해서 매년 농가일령에 따라 설 대보름 민속대놀이, 장 담그기, 한가위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추억에 굶주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형, 우리 아이들에게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농업의 뿌리 정도는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그 옛날 지게도 탈구지 타고 농촌 길을 다녔던 추억을 더듬을 수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해와 문화체험도 좋고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한번쯤 가족과 함께 찾아 어른들은 추억의 오르거름을, 아이들에게는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도 손해 볼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회색의 때를 벗겨내 녹색으로 물들고 싶은 향수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장>

의료 칼럼



김수영

젊은 여성의 비만은 남성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임신, 출산과 연관돼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이나 일부 호르몬의 이상 증상의 발생 위험이 커지며 생식기 기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여성의 비만은 생식관련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의 체중 및 지방세포의 증가는 인슐린의 농도 증가를 통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감소시킨다.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의 감소는 생식학적 활성이 높은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모름, 여드름, 남성형 탈모 등 임상적으로 안드로겐 상승이 초래된다. 결국 비만과 고

안드로겐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비만은 여성의 생리작용을 억제해 배란과 임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비만은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게 하며 비기능 자궁출혈의 빈도도 높인다. 그 외에 요실금, 희발월경, 만성 무배란, 다낭난소증후군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임신율이 감소하고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증가하며, 불임증 치료 과정에서 임신 성공률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함께 비만하지 않은 여성의 자연 유산율은 11%인데 비해 비만한 여성은 15%로 높다. 비만한 임신부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자간전증, 혈전 정맥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분만과정에도 지장을 초래해 자궁 촉진제 투여에 의한 유도 분만의 빈도가 증가하고 분만 제 2기의 지연, 견갑난산, 제왕 절개 수술의 빈도도 증가한다.

제왕절개 수술시에도 출혈량, 수술시간, 지연 및 수술 후 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

여성의 비만

이러한 합병증들은 임신 중 과다한 체중의 증가보다 임신 전 비만과 관련이 높다. 태아 및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에는 임신 말기 태아사망 위험, 신경과 결손 등의 선천성 기형, 거대아, 태아곤란증, 태변착색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비만한 여성은 부인과발 발생이 정상 여성보다 높다. 젊은 여성의 비만과 악성 종양의 발생이 직접 관련이 있다는 역학 증거는 아직 없으나 젊은 여성의 비만이 관리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폐경 후 일부 악성 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앞으로는 비만이 흡연을 제치고 암 발생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비만 치료는 더 이상 몸매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질병 예방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만은 개인의 생활 습관 즉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 부족 및 도시화된 생활 습관으로 에너지가 과잉,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입사 시험에 부모까지 나서서 현실 안타까워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부모들까지 나서서 자녀의 취업을 돕고 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구직자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견 생활품 제조업체인 우리 회사는 얼마 전 영업, 재무, 마케팅, 홍보, 디자인분야에 약 10여 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았다.

그런데 전형 기간 중 모집요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묻는 전화를 받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시자의 부모가 전화를

했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 대기장에 수험생 어머니가 함께 들어왔다가 퇴실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이가 20대 후반인데도 오죽하면 부모들이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인사담당자의 눈에 이런 지원자는 부모 품에서 못 벗어나는 '마마보이 지원자'로 보인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헤쳐나가고, 자신에게 잘 맞는 기업과 직종에 대해 본인 스스로 뚜렷한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것이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 대기장에 수험생 어머니가 함께 들어왔다가 퇴실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이가 20대 후반인데도 오죽하면 부모들이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인사담당자의 눈에 이런 지원자는 부모 품에서 못 벗어나는 '마마보이 지원자'로 보인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헤쳐나가고, 자신에게 잘 맞는 기업과 직종에 대해 본인 스스로 뚜렷한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어 퓨 굿맨(A Few Good Man·소수 정예 미해병대 상징)', 1992년 작품으로 관타나모를 배경으로 한 미 해병대 내 살인사건을 다룬 군사법정 영화다. 관타나모에서 해병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신타이고 일병. 그는 소위 '관심 사병'으로 일평생 지나친 감시함을 바탕으로 산 사형관 제셉 대령에게는 눈에 가시다. 그는 결국 해병대 내의 암묵적인 전통 '코드 레드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다 죽음을 맞게 된다. 가해자는 같은 소대원 두명.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제셋 대령은 법정 구속이 되고, 위계질서와 명령을 성전처럼 받들던 가해 사병은 불명예 제대를 당한다. 이

처럼 '코드 레드'는 미 해병대의 불문율이었다. 불법이지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로 전해졌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1976년 미 해병대 훈련병이던 린 매클루어는 고된 훈련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사병이었다. 참다 못한 교관이 군기를 잡기 위해 매클루어에게 나무방망이로

하는 백병전 훈련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 정예 미해병대 상징), 1992년 작품으로 관타나모를 배경으로 한 미 해병대 내 살인사건을 다룬 군사법정 영화다. 관타나모에서 해병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신타이고 일병. 그는 소위 '관심 사병'으로 일평생 지나친 감시함을 바탕으로 산 사형관 제셋 대령에게는 눈에 가시다. 그는 결국 해병대 내의 암묵적인 전통 '코드 레드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다 죽음을 맞게 된다. 가해자는 같은 소대원 두명.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제셋 대령은 법정 구속이 되고, 위계질서와 명령을 성전처럼 받들던 가해 사병은 불명예 제대를 당한다. 이

처럼 '코드 레드'는 미 해병대의 불문율이었다. 불법이지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로 전해졌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1976년 미 해병대 훈련병이던 린 매클루어는 고된 훈련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사병이었다. 참다 못한 교관이 군기를 잡기 위해 매클루어에게 나무방망이로

습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으로 전락하고 있다. 누구나 갈 수 없는 군대, 충성심과 명예, 사나이다움의 대명사인 해병대가 동료들 따돌리고 속 마히게 하는 문화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한국군도 코드 레드도 시급히 근절돼야 할 것이다.

최재호 정경부차장lion@kwangju.co.kr

코드 레드



光 州 日 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광)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채우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자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